

교린체제 확립기(1636~1655) 통신사의 三都 인식

정은영*

|| 차례 ||

- I. 서론
- II. 하례사절로서의 통신사 파견과 정보 탐색의 변화
- III. 통신사의 三都 인식
- IV. 결론

【국문초록】

17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병자·계미·을미사행은 조선과 일본의 교린체제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에 파견된 통신사였다. 이 시기 통신사는 誠信交隣을 표방하였기에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던 이전의 통신사에 비해 자유로운 일본 탐색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정보 탐색의 대상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大坂·西京·江戶의 三都였다.

확립기 통신사는 우선 각각의 도시가 가진 기능과 중심성에 따라 三都를 분석했다. 三都 중 大坂은 海路和 陸路가 만나는 結節地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江戶는 德川幕府의 새로운 수도로써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江戶城에 축조된 천수대는 關白의 권위와 공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도시의 공간 구획과 구조는 막부의 통치이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통신사는 풍수지리라는 조선의 전통적 공간원리에 따라 三都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도시의 지리적 입지가 그 命運을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통신사는 天皇이 머물고 있던 西京과 關白의 근거지였던 江戶를 비교, 關白에 대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였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다. 이렇듯 확립기 통신사의 三都 탐색은 일본 권력의 향방을 판단하여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기능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통신사, 大坂, 西京, 江戶, 도시 기능, 풍수지리

I. 서론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1607년 통신사의 파견과 함께 재개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총 12차례의 통신사가 파견되었는데, 조선과 일본 양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통신사 파견의 목적과 성격은 달라졌다. 이 중 17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병자(1636)·계미(1643)·을미(1655) 사행은 양국의 교린체제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에 파견된 통신사로, 이전의 ‘回答兼刷還使’뿐만 아니라 이후에 파견되는 사신과도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교린체제 확립기¹⁾의 통신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부로써 그 개괄적인 성격을 살펴보

1) 통신사의 시대구분은 한태문(『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의 견해를 따랐다. 한태문은 기존 사학계의 시대구분을 참조, 외교체제의 성격과 통신사 사행문학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조선후기 통신사를 총 4개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교린체제 모색기는 피로인 쇄환 등의 외교적 실무가 중심이 된 사행으로 1차에서 3차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교린체제 확립기는 양국 간 정상적인 국교가 재개된 4차에서 6차까지의 사행이며, 교린체제 안정기는 양국 文士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7차에서 11차까지의 사행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교린체제 와해기는 대마도에서의 易地聘禮가 이루어진 12차 사행이 속한다. 이 논문은 통신사행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통신사의 삼도인식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통신사행록을 문학적 텍스트로 삼으면서도 사학계의 기존 연구를 반영하고 있는 한태문의 시대구분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는 수준²⁾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별 사행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³⁾, 日光山致祭를 고찰한 연구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정장식은 교린체제 확립기의 통신사를 각 시기별로 살펴⁵⁾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扶桑錄』과 같은 특정 작품에 집중⁶⁾되어 있거나, 통신사의 일본 인식이라는 주제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조선후기 통신사를 파견한 주된 목적이 일본에 대한 정보 탐색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신사가 일본에서 탐색하고 기록으로 남긴 대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확립기의 통신사는 誠信交隣을 표방하면서 파견된 사신이었기에 이전 사행에 비해 자유로운 일본 탐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탐색 대상이 일본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바라보

2)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정영문, 「조선시대 대일사행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 김호길, 「동명 김세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정영문, 「신유의 해사록에 나타난 일본체험과 인식고찰」,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09.;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형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강통길, 「김세렴 『해사록』 중의 일본형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 최중일, 「조선통신사의 일광산치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장혜진, 「에도시대 조선통신사 넢코행에 관한 일고찰 : 17세기 중반 류큐사절의 넢코행 비교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록에 반영된 일광산행」,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5) 정장식, 「1636년 통신사의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6,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1655년 통신사행과 일본연구」, 『일본학보』 44, 한국일본학회, 2000.; 「계미(1643년) 통신사행과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10,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6) 한수희, 「호국 남용익의 사행문학 연구 : 『부상록』·『문견별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윤재환, 「호국 남용익의 사행시를 통해 본 對日·對淸 의식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보』 24, 우리한문학회, 2011.; 김미정, 「호국 남용익의 사행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종수, 「호국 남용익의 일본문명 견문」,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는 관점도 다각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三都(大坂·西京·江戸)였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던 통신사에게 도시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데 용이한 대상이었다. 그래서 확립기 통신사는 三都에 대한 정보를 사행록에 자세하게 남겼다. 여기에서는 사행록에 반영된 확립기 통신사의 三都 탐색 방법과 그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하례사절로서의 통신사 파견과 정보 탐색의 변화

1636년 병자사행은 이전의 세 차례 사행과는 그 파견 목적이 달랐다. 1603년 개창한 막부는 3대 關白 家光에 이르기까지도 불안정한 권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1633년 幕府의 直參旗本이 되고자 했던 調興이 대마도주의 國書 改作을 폭로하는 사건[柳川一件]이 발생하였다. 1634년 對馬島主 義智와 부관 調興이 상대를 幕府에 제소하였고, 關白 家光은 이 사건의 재판을 직접 주관, 調興과 玄方은 流配를 보내고 외교 문서 작성에 참여한 島川內匠, 松尾七右衛門 등은 극형⁷⁾에 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조·일 양국의 중개자였던 대마도의 역할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幕府는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정비⁸⁾하였다. 國書에서 ‘日本 國王’이란 칭호를 ‘日本國 大君’으로 바꾸고, 일본 年號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마도의 국서 개작을 방지하고자 東京 五山の 禪僧을 대마도의 以酌菴에 변갈아 주재시켜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관리⁹⁾하

7) 강제연 지음·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p.175.

8) 민덕기, 『에도 막부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로의 진입 노력-무로마치 막부와 비교하여-』, 『일본사상』 제6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4, p.156.

9) 강제연 지음·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pp.190-191.

도록 하였다. 또한 幕府는 대마도의 외교적 역량을 파악한다는 구실로 대마도를 통해 馬上才軍과 使臣의 파견을 요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譯官 洪喜男이 일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4월에 江戸에 들어가 島主의 집에서 접견하고 禮曹의 書啓를 올리고 相見禮를 행하였습니다. 도주가 사례하여 마지않으면서 곧바로 關白에게 고하였습니다. 관백 역시 기뻐하며 쌀 2백 석을 도주의 집에 주며 잘 供饋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調興이 우리나라를 讒訴하고 毀謗함이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關白이 도주로 하여금 馬上才하는 사람을 요구하여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交隣의 誠僞를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도주가 주선한 것의 虛實을 탐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서로 爭訟을 하였는데 도주가 이겼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¹⁰⁾

대마도에 파견되었다 돌아온 譯官 洪喜男은 義智와 調興 간에 일어난 爭訟의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막부의 마상재군 요청은 조선이 本國을 진정한 교린의 상대로 여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調興 일파에 의해 제기되었던 대마도의 親朝鮮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라고 조정에 아뢰었다.

일본과의 안정적인 교린 관계를 유지위해서는 대마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선 조정은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발발 후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로인 쇄환을 명분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는 곤란하였다. 그래서 사신의 명칭을 ‘回答兼刷還使’에서 ‘通信使’로

10) 『인조실록』 13년, 6월 13일(신묘), “至是譯官洪喜男回自日本說稱 四月入江戸 接於島主之家 呈禮曹書契 行相見禮 島主稱謝不已 卽告關白 關白亦喜 給米二百石于島主家 使之供饋 觀其氣色 則調興之讒毀我國 無所不至 故關白令島主要求馬上才之人 一以觀我國交隣之誠僞 一以探島主周旋之虛實 且兩人相訟 而島主得伸云”

변경하여 조선의 사신 파견이 양국의 성신 외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조선을 둘러싼 대외 정세도 변화가 생겼다. 바로 적개의 대상이 일본에서 後金(淸)으로 바뀐 것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秀吉이 죽고, 대신 秀吉의 집안을 멸한 家康이 집권하면서 조선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胡亂을 거치며 후금에 대한 조선의 적개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또한 후금이 조선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 반면, 일본과는 국교의 재개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로부터 원수를 갚고 치욕을 푸는 데는 반드시 이웃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웃은 이 일본뿐인데 誠信으로써 사귀지 않았습니까. 근래 중국과 일본이 서로 交通한다고 들었는데 그 虛實은 모르겠으나 이해됨이 없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中原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만약 才辯이 있는 자를 가려 행장을 꾸려 가지고 가서 정세를 탐지하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말한다면 삼십 년간 사귀어온 나라인데 어찌 와서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¹¹⁾

인조와의 面對를 청한 趙綱은 후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誠信交隣의 정신으로 일본을 대해야 하며, 조선의 실상을 일본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보았다. 후금으로 인해 군사적 방어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宥和策을 모색하지는 것이며, 일본을 이용하여 후금을 견제하지는 일종의 以夷制夷

11) 『인조실록』 16년, 5월 13일(을해), “自古復讐雪恥 必賴隣援 我之隣國 只是日本 而不以誠信交 近聞天朝與日本相通 未知其虛實 而不無是理 我不能得其援 而反爲用於中原 此時若擇有才辯者 而作一介行李 往探情形 諭以我之實狀 則彼三十年隣好之國 亦豈無來援之理乎”

論¹²⁾이었다. 이에 따라 對馬島의 인삼 私貿易을 허용하는 등 조선은 후금 견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우방으로서 대일본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외교정책 변화는 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1636년뿐만 아니라, 뒤이은 1643년에는 若君 탄생을, 1655년에는 家綱의 關白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太平盛世를 慶賀한다는 명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던 병자사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는 賀禮使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듯 통신사의 파견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통신사행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문화적 역량이 중요시 되었다.

그 중에서도 書記를 사행원으로 선발하여 三使에 각각 배속시키고¹³⁾, 家康의 願堂에 致祭를 지내기 위해 讀祝官을 파견하는 등 사행원의 학문적 자질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기는 직책은 있으나 관직은 없었기에 文法이나 師律에 얽매어있지 않아 삼사나 역관에 비해 그 운신의 폭이 넓었다. 더불어 이들이 일본의 林羅山 일가가 배출한 수많은 유학자·문인과 교류하면서 통신사가 파악할 수 있는 일본정보와 지식은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 조선 사회가 통신사에게 요구했던 역할 역시 자유로운 일본 탐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기에 실린 것은 地利, 험한 요새, 遠近, 백성의 많고 적음, 風謠, 세속의 嗜好, 물산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다. (중략) 이것은 四海 밖을 博覽한 데서 나온 것이니 어찌 사신의 일만 엄격하게 한 데 그치겠는가. 먼 나라에 사신 가는 자들로 하여금 취하게 할 만한 것이기에 이를 적어서 東溟 학사의 『海槎錄』 서문으로 삼는다.¹⁴⁾

12)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p.355.

13)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제13집, 전북대학교 학회, 1990, pp.44-45.

14) 허목, 『記言』 別集 제8권, 『序』, <東溟海槎錄序>, “日記所載 如地利隘塞遠近民物

허목은 김세립의 『해사록』이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등 일본의 다양한 분야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했다. 그리고는 사신으로 異國을 경험한 이들은 모름지기 奉命使臣으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사행 국가에 대해 두루 박람하고 그 견문을 기록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신사의 파견이 春秋大義에 어긋나는 치욕적인 일이라 반대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관점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誠信交隣을 旗幟로 내세우고 파견된 확립기 통신사는 이전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본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 탐색 대상은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본정보에 정확성을 부여하거나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三都였다.

Ⅲ. 통신사의 三都 인식

확립기 통신사는 일본의 도시, 그 중에서도 大坂·西京·江戸의 三都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물론 이전의 통신사 역시 도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전대 사행록에 등장하는 도시는 德川幕府에 대한 기대와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담장과 기와는 모두 황금을 입혔는데, 그 꾸밈세의 찬란함이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세 번째 겹문을 들어가면 바야흐로 石城이 있었는데, 성 쌓는 일이 한창 일어나서 아직 완축되지 못하였다. 각 주의 군병이 모두 와서 부역

盛衰風謠俗尙物產之異 (中略) 此皆博四海之外者 豈特嚴使事 已 可爲使絕國者取之 書之以爲東溟學士海槎錄序”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원근에 진동하였다.¹⁵⁾

家康과 秀忠, 그리고 家光은 일본에 남아있던 秀吉·수뢰의 흔적을 지우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그 중 하나가 도시의 정비였다. 1607년 정미사행의 부사 경섭은 부역하는 군사들의 흥얼거림으로 江戸를 기록하였다. 도시의 화려한 외관과 더불어 원근에 진동하는 이 흥얼거림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섭은 이러한 도시의 정비에 각 藩의 군사가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명확히 적었다. 중앙집권적 통치 국가였던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關白의 직할령을 제외하고는 藩主에 의해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했던 통치 체제였다. 그리고 각 번에 허용되는 자치의 범위 안에는 군사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幕府 개창 초기에 家康과 秀忠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통신사는 德川幕府가 가진 권력의 불완전함 역시 인지할 수 있었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시작된 막부의 도시 정비는 17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완결되었다. 그래서 확립기 통신사는 三都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여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1. 기능과 중심성에 따른 三都 탐색

대마도에 도착한 통신사는 조선과는 대비되는 일본의 경제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정결한 관소는 물론 지공으로 제공되는 찬물의 양은 일본의 풍부한 物力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商船으

15) 경섭, 『해사록』, 6월 6일(정유), “門牆屋瓦 皆着黃金 其雕飾之輝 眩曜人目 三入重門 方有石城 城役方興 時未完築 各州軍兵 皆來赴役 呼耶之聲 震動遠近”

로 뒤덮인 항구, 인파와 재화로 넘쳐나는 저자 등, 통신사는 사행 노정에서 목도한 도시의 모습에 驚歎할 수밖에 없었다. 그 놀라움은 大坂에서도 이어졌다.

[가] 원근의 선박들이 모두 여기에 모이니, 실로 장사꾼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物貨의 府庫다. 비록 전쟁이 있을 적에도 피차 아끼고 서로 완벽히 보호하며 불살라 없애지 않으므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온다.¹⁶⁾

[나] 人民의 많음과 物貨의 번성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강과 河水 수십 리 안은 장삿배들의 이물과 고물이 서로 이어졌고, 양쪽 언덕을 바라보니 발 붙일 곳이 없었다.¹⁷⁾

[가]는 1607년 정미사행의 부사 경섬, [나]는 1617년 정사사행의 종사관 이경직이 본 大坂의 모습이었다. 상선으로 가득 찬 항구와 넘쳐나는 재화는 大坂이 교역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민의 많음’과 ‘물화의 번성’으로 설명되는 大坂의 모습은 赤間關이나 兵庫 등 일본의 다른 도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오히려 경섬은 ‘재화의 府庫’라고 표현했던 大坂의 物力을 일본의 군사력 혹은 전쟁과 연결하였다. 그렇기에 모색기 통신사에게 大坂의 경제적 번성은 전쟁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비해 확립기 통신사는 도시가 가진 기능과 중심성¹⁸⁾에 따라 大坂

16) 경섬, 『해사록』, 4월 7일(기해), “遠近船舶 皆會於此 實商賈所集 物貨府庫 雖在兵戈之際 彼此愛惜 互相完護 不行焚殺 避亂之人 爭先投入”

17) 이경직, 『부상록』, 8월 18일(경술), “人民之衆 貨賄之盛 不可勝言也 江河之內數十里 商船賈舶 舳舻相連 瞻望兩岸 無所着足”

18) 도시의 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의 한 결절점이 다른 결절점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과 한 결절점이 다른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 위에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사이중심성을 가진다. 최재현·차은혜,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도시

을 분석했다. 확립기 통신사가 기록한 大坂은 교역과 상업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 그 자체였다.

[다] 秀忠이 關白이 된 후에 각 州에 영을 내려서 각각 성 하나씩만 보전하고, 별도로 성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허물게 했다고 한다.¹⁹⁾

[라] 크고 작은 材木이 강 언덕에 산처럼 쌓여져 있고, 장삿배들은 겹겹이 양쪽 언덕의 마을 앞에 정박되어 있었다. 그리고, 虹橋로써 백여 칸 혹은 수백 칸으로 만들었는데, 강물을 가로질러서 大路를 놓은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리 위로는 수레 몇 대가 나란히 갈 수 있고, 다리 밑으로는 큰 배가 통행하였다.²⁰⁾

[마] 동남 언덕에 堺濱이 있어 인가가 매우 번성하였는데, 곧 西南 상인들의 모이는 곳이었다. 돛대가 바다를 뒤덮어 모여 있는 것이 수풀과 같았다. 아홉 大橋가 있는데 길이가 數里이고 배들이 그 밑으로 다녔다. 강물이 동리와 이어져 통한 것이 4~5가닥이나 되는데, 굵이굵이 작은 다리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 남북 30리 동서 40리 사이에 인가가 가득 차 대략 30만 호라고 하였다.²¹⁾

[다]는 ‘一國一城令’에 대한 내용이며, [라]·[마]는 ‘一國一城令’ 이후 大坂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1615년 大坂전투 후 막부는 각 藩主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나의 거점 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은 없애도록 명했다. 그

기능성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2, p.52.

19) 이경직, 『부상록』, 8월 4일(병신), “秀忠爲關白之後 下令各州 各保一城 使不得別設城子 使之毀撤云”

20) 임광, 『병자일본부기』, 11월 10일(경술), “大小材木 委積江岸如山 商船買舶 疊疊留泊於兩岸村前 造以虹橋百餘間 或數百間 橫駕江水作大路者 不知其幾處 橋上亦可方數車 橋下通行大船”

21) 남용익, 『부상록』, 『부상일록』, 9월 5일(병술), “東南岸有堺濱 人家極盛 卽西南商賈所集之所也 帆檣蔽海 簇簇如林 有九大橋 長可數里 舟楫行其下 江水連通閭里者四五枝 曲曲小橋 不可勝數 南北三十里 東西四十里之間 閭里彌滿 或云三十萬戶”

러자 여러 성에 흩어져 살고 있던 무사와 家臣團이 藩主가 머물고 있는 성으로 오게 되면서 순차적인 인구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무사와 가신단의 가족과 그 수행원을 비롯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파는 상공업자도 함께 거점 성으로 유입된 것이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인해 성 내에서 생산되는 곡물과 생활용품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고 결국은 더 큰 도시에서 물자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²²⁾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大坂은 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물의 유통 중심지로서 30만호의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판의 성장은 海路와 陸路가 만나는 결절지라는 중심성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확립기 통신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大坂을 분석하였다. 大坂은 강과 바다가 만나고 山陽과 山陰의 모든 주가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江戶까지 연결되는 東海道の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확립기 통신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大坂의 운하와 교량이었다. 강물에서부터 마을까지 연결된 大坂의 운하는 배를 이용한 물자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강과 운하 위에는 각각 大橋와 小橋를 무지개다리(虹橋)의 형태로 조성하여 아래로는 배가, 다리 위로는 수레와 사람이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통신사는 大坂에는 수레 몇 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대교가 너무 많아 그 개수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大坂의 물동량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확립기 통신사는 大坂을 도시적 기능과 중심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도시가 지닌 기능과 중심성의 맥락에서 통신사가 가장 신경 써서 기록

22) 근세 일본의 도시 성장에 대해서는 박진한, 『일본 근세의 도시사회와 도시지배』, 『동양사학연구』 제102집, 동양사학회, 2008.; 김동기, 『근세일본에서의 정인문화의 양상과 특징』, 『역사와 세계』 39, 효원사학회, 2011 참조.

한 도시는 江戸였으며, 조선 조정에서 관심을 표했던 곳 역시 江戸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지에 내린 뒤에 대저 江戸까지는 며칠 노정인가?”라고 하니, 順之가 아뢰기를, “약 15일 길을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나는 곳에 마을은 많던가?”라고 하니, 순지가 아뢰기를, “비록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라도 촌락으로 모두 묶여있었으며 소위 작은 마을이라 이르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큰 고을보다 나았습니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江戸에 있는 군병은 그 수효가 얼마나 되던가?”라고 하니, 함께 대답하기를, “關白의 군병은 50만 명이고 諸將의 군병은 80만 명이라고 하였으나, 그 給料의 액수를 들으니 거의 5, 6백만 명에 이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江戸에도 성을 쌓고 濠를 팠던가?”라고 하니, 순지와 경이 아뢰기를, “세 겹의 성을 쌓고 두 겹의 호를 둘렀는데, 모두 큰 전함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³⁾

국왕 인조가 癸未使行的 삼사에게 주로 질문했던 대상은 江戸였다. 인조는 大坂에서 江戸까지의 거리,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수, 江戸城의 형태 등 새로운 수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다른 두 도시에 비해 江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모색기 세 차례의 사행 중 제2차는 西京의 伏見城에서 전명례를 거행했고 다른 두 차례의 사행은 江戸까지 가기는 했으나 아직 수도로서의 모습을 완전하게 갖추기 전이었다. 따라서 확립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비가 완료된 江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23) 『인조실록』 21년, 11월 21일(신해), “上曰 下陸後抵江戸幾日程耶 順之曰 約行十五日程矣 上曰 所經處多有村落乎 順之曰 雖高峯絕頂 村落亦皆籠絡 而其所謂小村亦愈於我國之大邑矣 (中略) 上曰 軍兵之在江戸者 其數幾許云耶 皆對曰 關白之兵五十萬 諸將之兵八十萬云 而聞其給料之數 則幾至五六百萬矣 上曰 江戸亦築城鑿濠耶 順之綱曰 築三重城 匝以重湖 皆容巨艦矣”

都城이 가까워지자 층층으로 된 누각과 큰 집이 땅에 가득하게 둘러 있어 이루 셀 수가 없었다. (중략) 坂橋 냇을 지나서 멀리 서북쪽을 바라보니 석회를 바른 성기둥이 둘러져 있고 그 속에 7층 누각이 있는데, 이른바 天守臺로 관백의 성이었다. 동남쪽은 木柵을 엮고 도랑을 잘라서 水口를 막아 바로 성의 壕로 들어가게 하여 바다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²⁴⁾

家康이 관동을 다스리기 위해 江戸로 들어왔을 때만 하여도 그곳은 작은 성과 수풀이 무성한 습지²⁵⁾가 전부였다. 그래서 1603년 德川幕府가 개창되고 나서부터 3대 家光까지 江戸城의 중축과 정비가 계속되었다. 江戸에 도착한 통신사를 맞은 건 大坂·西京에서 본 井자 형태의 공간 구획이었다. 江戸의 기본적인 공간 배치는 기존 도시의 형태를 따랐다. 그러나 3중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에 넓이가 7~8장에 이르는 해자가 둘러싸고 있는 江戸城과 내성에 지은 7층 높이의 天守臺는 통신사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1636년 병사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江戸城을 ‘金城湯池’로 표현했다.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천수대는 江戸의 사방을 감시할 수 있었는데, 역으로는 江戸 어디에서든 천수대가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막강한 關白의 권위와 공권력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德川幕府에서 시행한 參勤交代制는 새로운 도시 구조를 형성했다. 德川幕府는 격년제로 일 년씩 江戸에 체류할 것을 모든 藩主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1635년부터는 해마다 4월을 기점으로 西國과 東國 지역

24) 작자미상, 『계미동사일기』, 7월 8일(기해), “行近都城 層樓大閣 撲地周匝 不可縷數 (中略) 凡過四板橋 遙望西北 粉堞繚繞 中有七層閣 所謂天守臺 關白之城也 東南則結寨截渠 以防口 直抵城壕 與海相通”

25) 오이시 마나부, 『일본근세도시 에도의 기능과 성격』, 『도시인문학연구』 제1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p.130.

의 藩主가 교대로 參勤할 것을 아예 명문화하였다. 260여 개에 이르는 藩의 大名이 일 년이나 江戸에 머물게 되면서 藩主를 모시는 무사와 그 가족까지 江戸로 이주하였고, 그 결과 16세기 7천 명에 불과했던 江戸의 인구가 參勤交代制 실시 이후 50만 명으로 증가²⁶⁾하였다. 이에 德川幕府는 秀吉이 실시했던 거주 구역 구분 정책을 수용하여 에도성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구성하고, 직능에 따라 무사의 거주지인 武家地, 직인과 상인의 활동 공간인 町人地, 그리고 신사와 사원이 위치한 寺社地²⁷⁾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통신사의 관심을 끈 것은 도시 구획화에 더하여 江戸城을 三重으로 지으면서 가신단과 번주 역시 그 거주지를 구별하였다는 점이었다.

[바] 外城의 안에는 關白의 親屬과 諸將들의 집이 있고, 中城 안에는 다만 군사들의 훈련장이 있었다. 內城은 극히 작운데, 다만 대군의 집이 있었다.²⁸⁾

[사] 외성 안에는 모두 執政·將官의 집이었다. 나는 듯한 지붕과 굉장히 큰 건물은 황금색·푸른색으로 찬란하여 용과 봉황이 서리고 꿈틀거리는 형상이요, 내성에는 다 관청이었다. 7층 누각이 그 가운데 있어 이른바 天守臺인데 곧 關白의 궁궐이었다. (중략) 家戶의 수는 大坂과 비슷하고 倭京보다는 훨씬 많았으며, 지세가 든든하고 토지가 기름진 것은 또 두 도시(大坂과 西京)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²⁹⁾

26) 오이시 마나부, 『일본근세도시 에도의 기능과 성격』, 『도시인문학연구』 제1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p.126.

27) 박진한, 『일본 근세의 도시사회와 도시지배』, 『동양사학연구』 제102집, 동양사학회, 2008, p.173.

28) 임광, 『병자일분일기』, 12월 14일(갑신), “外城之內 皆關白親屬及諸將之家 中城之內 只有鍊士之場 內城則極小 只有大君家”

29) 남용익, 『부상록』, 10월 2일(임오), “外城內則皆是執政將官家也 飛薨傑構 金碧照耀 爲龍鳳盤挈之狀 內城則皆公府也 有七層閣在其中 所謂天守臺 卽關白之宮也 (中略) 家戶之數 均於大坂 優於倭京 而至於地勢之控扼 田土之膏腴 又非二都所及矣”

1636년 병자사행의 정사 임광과 1655년 을미사행의 종사관 남용익은 江戶城의 내부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江戶城의 내성에는 關白이 거주하였고, 중성에는 연병장이, 그리고 외성의 안에는 가신단과 諸藩主의 사저가 있었다. 關白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형성된 家臣과 藩主의 주거지는 결국 관백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03년 德川幕府 개창 이후 벌어진 일본 내의 政爭, 그에 따른 권력의 향배를 파악하는 것에 모색기 통신사는 집중했다. 아울러 一國一城令·參勤交代制와 같은 막부의 권력 강화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전 기록을 숙지하고 떠났던 확립기 통신사는 기존의 사행록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사실을 더하며 일본의 도시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 결과 一國一城令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한 大坂이 관백의 직할령인 藏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沿路에서 만난 유학자들을 통해 막부가 ‘上下질서의 理’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江戶를 탐색할 수 있었다. 江戶에 도착한 확립기 통신사는 도시의 크기와 축성에 사용된 재화,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건물을 통해 막부의 경제력을, 하늘 높이 치솟은 천수대와 도시 구조를 통해 막부의 권력 장악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확립기 통신사는 정비된 도시의 모습을 통해 江戶가 막부의 이념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수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풍수지리에 따른 三都 탐색

확립기의 통신사는 풍수지리라는 조선의 전통적 공간원리³⁰⁾에 따라 三

30) 김선범, 『성곽의 都市原形的 해석;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都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풍수는 지리를 체계화한 전통적인 논리구조이자 넓은 의미의 토지관·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 風·水·山·向을 기본요소로 하는 풍수는 천지의 生氣와 地脈을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상³¹⁾으로, 조선에서는 常道인 유교를 보좌해줄 權道의 문화로써 풍수지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였다. 圖讖의 성격의 지리서들은 폐기³²⁾되었지만, 성곽과 궁궐의 축조나 중축에는 풍수를 적극 이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陰陽科를 통해 풍수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³³⁾하였다.

확립기 통신사는 일본의 三都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즉 개별 도시의 성장과 흥망을 지형적 특징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山城州는 도시가 만들어진지 가장 오래되었는데, 比睿·瑞龍·音羽·惠日·宇治·八幡의 여러 산이 그 동쪽에 있고, 愛宕·靈龜·萬年の 여러 산이 그 서쪽을 둘러다. 宇治·大井·賀茂 등 여러 내가 5백, 6백 리 밖에서 발원하여 큰 것은 강물이 되고 작은 것은 연못이 되어 그 앞에 섞여 통하며 합하여 大河가 되어 淀浦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한 州의 둘레가 거의 2백여 리인데, 논밭이 기름지고 배와 수레가 輻湊하며 閭閻이 번성하고 거리가 通達하니, 왜인들이 스스로 洛陽이라 칭함이 혹은 비슷하다 하겠다.³⁴⁾

지』 제2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p.21.

31) 풍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1993.; 김동찬·김진성, 「풍수 형국론이 갖는 의미의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와우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 한국전통조경학회, 2000 참조.

32) 노대환, 「광해군대의 궁궐 경영과 풍수지리설」, 『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p.247.

33) 이에 대해서는 문영호, 「『俛仰亭歌』의 풍수지리학적 접근」, 『도교문화연구』 제19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3, p.150.; 이화, 『조선시대 산송자료와 산도를 통해 본 풍수용의 실제』, 민속원, 2013, pp.27-28 참조.

통신사는 西京을 古都의 위엄을 갖춘 도시로 묘사했다. 비록 大阪과 같은 활기는 없으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통신사가 본 西京의 모습은 가호의 수나 그 크기가 三都 중 다른 두 도시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천황의 도시라는 상징성 때문에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곳이었다. 화려한 塔閣과 유서깊은 사찰을 비롯하여 곳곳에 조성된 숲은 西京의 전통과 역사를 말해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통신사는 西京의 넓고 기름진 토지는 西京이 오랜 시간 수도일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확립기의 통신사는 일본인들이 西京을 중국의 洛陽에 비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확립기 통신사는 德川幕府의 새로운 수도인 江戶의 입지와 지세를 평가했다.

江戶는 비록 궁벽하고 먼 듯하나 기름진 들판이 천 리이고, 큰 바다가 동쪽을 지나가며 箱根嶺이 앞을 막고 있다. 六卿과 黑田의 두 커다란 내가 하수를 이루어 좌우로 襟帶가 되었다. 지형의 險阻함이 왜국의 으뜸이요, 하물며 富士山이 州 안에 있어 높이 서리어 하늘에 닿을 듯 웅장하여 범할 수 없는 형세를 가졌으니 무릇 일본의 鎮山이라 이를 만하다. 북으로 陸奥까지 거의 천 여리가 되고, 동으로 山城에 이르기까지 또한 천 여리가 되니 대판이 한 구석에 치우쳐 있음과 같지 않다. 源氏가 賴朝로부터 이후 대대로 鎌倉에 살아왔다. 여러 섬의 倭酋들이 서로 삼키고 물어뜯어 멸망하였으니, 원씨는 지금까지 백여 년을 거듭하여 그 나라를 잃지 않았으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³⁵⁾

34) 조경, 『동사록』, 『왜국삼도설』, “山城州作都最久 比睿瑞龍音羽惠日宇治八幡諸山在其東 愛宕靈龜萬年諸山 擁其西 宇治大井賀茂諸川 發源於五六百里外 大者爲河小者爲淵 交涌其前 合以爲大河 至淀浦入海中 開一州周回幾二百餘里 土田膏腴 舟車輻湊 閭閻殷盛 街衢通達 倭人之僭稱洛陽者 庶或近之”

35) 조경, 『동사록』, 『왜국삼도설』, “江戶雖似僻遠 而沃野千里 大海經其東 箱根蔽其前

江戶는 전면에는 바다가, 동쪽에는 험준한 箱根嶺이 있어 적의 방비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1643년 계미사행의 부사 趙綱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德川家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關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江戶의 지형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한편 일본인이 西京을 중국의 낙양에 비유했다면, 통신사는 江戶를 중국의 長安에 필적할 만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江戶는 바닷가에 있고 평평하게 수백 리에 펼쳐 있으며 日光山을 鎮山을 삼았다. 두 커다란 내가 그 동쪽에 지나가며 箱根嶺이 그 오른쪽을 가리고 있어 險固가 사방을 막고 있으니 중국의 長安과 같았다. 倭京은 사방으로 통하는 도회지로서 나라 안의 북편에 있어 군사를 쓸 만한 땅은 아니다.³⁶⁾

특히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江戶를 기록하며 도시의 지형을 西京과 비교하였다. 김세렴은 西京이 나라의 중앙에 있어 사방으로 통하기는 하나 군사를 도모할 땅은 아니었던 데 비해, 江戶는 능히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생각은 두 도시의 형세를 단순 비교하는데 머물지 않고, 권력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천황과 관백이라는 이원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황과 관백 중 누구를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볼 것인가는 곧 조·일 외교 관계의 주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

六卿黑田兩大川 成河而襟帶左右 地形險阻 爲倭國最 況富士山 在其封內 高蟠而幽天 有雄壯不可犯之勢 豈非爲日本山鎮者乎 北至陸奧幾千有餘里 東至山城亦千有餘里 定非大坂之偏處一隅 源氏自賴朝以後世居鎌倉 諸島倭酋互相噬滅亡 而源氏至今屢百有餘年 不失其國 豈無所以然哉”

36) 김세렴, 『해사록』, 12월 7일(정축), “江戶在海濱 平行數百里 以日光山爲鎮 兩大川經其東 箱根嶺蔽其右 險固四塞 猶中國之於長安 倭京則四達之會 在一國中 非用武地矣”

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통신사에게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립기의 통신사는 천황의 도시인 西京과 관백의 근거지인 江戸의 지형을 비교한 것이다.

확립기 통신사는 개방적이고 평탄한 西京의 지형이 국방적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어 더 이상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江戸는 그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전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했음은 물론, 앞으로도 능히 일국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각 도시의 지리적 특징은 권력자의 命運과도 연결되어 결국 일본의 천황이 關白에게 권력을 찬탈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天皇은 한 달 중에 보름 이전에는 목욕제계하고 고기와 葷菜를 먹지 않는다. 촛불을 밝히고 아침이 되도록 꿇어앉아서 하늘에 기도하고, 보름 이후는 오로지 음탕한 것에 빠진다고 한다.³⁷⁾

또한 확립기 통신사는 西京을 언급하면서 천황이 皇位를 찬탈당한 역사, 그리고 현재 천황의 지위를 함께 언급하였다. 1636년 병자사행의 종사관 황호는 荒淫에 빠져 방탕하게 생활하는 인물로 천황을 기록했으며, 1655년 을미사행의 종사관 남용익은 천황을 관리의 임명장에 도장이나 찍어주고 사는 한심한 인물로 묘사했다. 확립기 통신사는 천황에게 정치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더했던 것이다.

결국 이념적 명분보다는 현실 외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조정

37) 황호, 『동사록』, 11월 18일(무오), “天皇一月之內 望前則齋戒沐浴 不食肉不茹葷 明燭達朝 危坐祈天 望後則專事荒淫云”

과 통신사에게 西京과 江戸의 자연적 형세는 천황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과 맞물리면서 일본의 실질적 지배자는 關白이며, 그를 양국 외교의 주체로 설정하는데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³⁸⁾했다. 이렇듯 확립기 통신사의 三都 탐색은 일본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용한 방법이었다. 특히 三都는 관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본의 권력 투쟁과 그 향방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모색기 통신사가 목도한 일본은 關原合戰(1600)·大坂전투(1615) 등의 연이은 내전으로 그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러한 일본의 내분은 조선 재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때보다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파견된 확립기 통신사는 三都의 모습을 통해 막부의 권력 장악과 유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는 일본의 재침 가능성이 없음을 조선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후 양국 사이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

IV. 결론

확립기의 통신사는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三都를 기록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德川幕府가 시행한 일련의 권력 강화책이 도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향후 일본 정세를 파악하는데 三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는 도시의 경관 이외에 각각의 도시가 특정한 기능과 중심성에 따라 三都를 분석했다. 三都 중 大坂은 海路와 陸路가 만나는 結節地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

38) 이 시기 조선에서 전개된 천황론에 대해서는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84-89 참조.

다. 한편 江戸는 德川幕府의 새로운 수도로서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江戸城에 축조된 천수대는 關白의 권위와 공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도시의 공간 구획과 구조는 상하질서를 강조하는 막부의 통치이념을 명확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 통신사는 풍수지리라는 조선의 전통적 공간원리에 따라 三都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도시의 지리적 입지가 그 지역, 나아가 사람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통신사는 천황의 머물고 있던 西京과 關白의 근거지였던 江戸를 비교, 關白에 대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三都는 단시간 내에 일본에 대해 파악해야 했던 통신사에게 유용한 탐색 대상이었다. 모색기 통신사가 德川幕府를 불안정한 정권으로 평가하며 전쟁 재발 가능성을 제기했다면, 확립기의 통신사는 성장하는 三都의 모습을 통해 幕府의 권력 장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확립기 통신사의 三都 탐색은 일본 권력의 향방을 판단하여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기능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더욱 명확해지기 위해서, 또 조선후기 통신사의 삼도 인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행록을 통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각 시기 통신사의 삼도에 대한 인식 차와 그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국역 『조선왕조실록』

국역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82.

2. 논문 및 단행본

강재연 지음·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p.175.

이 화, 『조선시대 산송자료와 산도를 통해 본 풍수운용의 실제』, 민속원, 2013, pp.27-28.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1993, p.66.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p.355.

藤井讓治 외 지음·박진한, 이계황, 박수철 옮김, 『쇼군/天皇/국민』, 서해문집, 2012, p.156.

강룡길, 『김세렴 『해사록』 중의 일본형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동기, 『근세일본에서의 정인문화의 양상과 특징』, 『역사와 세계』 39, 효원사학회, 2011, pp.65-102.

김동찬·김진성, 『풍수 형국론이 갖는 의미의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와우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 한국전통조경학회, 2000, p.2.

김미정, 『호국 남용익의 사행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선범, 『성곽의 都市原形的 해석 ;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p.21.

김중수, 『호국 남용익의 일본문명 견문』,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pp.41-69.

김호길, 『동명 김세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노대환, 『광해군대의 궁궐 경영과 풍수지리설』, 『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p.247.

문영호, 『『俛仰亭歌』의 풍수지리학적 접근』, 『도교문화연구』 제19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3, p.150.

민덕기, 『에도 막부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로의 진입 노력-무로마치 막부와 비교하여-』, 『일본사상』 제6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04, p.156.

박진한, 『일본 근세의 도시사회와 도시지배』, 『동양사학연구』 제102집, 동양사학회,

- 2008, p.173.
-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형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pp.71-99.
- 윤재환, 『호국 남용익의 사행시를 통해 본 對日·對淸 의식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보』 24, 우리한문학회, 2011, pp.281-313.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제13집, 전북대학회, 1990, pp.44-45.
- 장혜진, 『에도시대 조선통신사 닛코행에 관한 일고찰 : 17세기 중반류큐사절의 닛코행 비교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영문, 『조선시대 대일사행문학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신유의 해사록에 나타난 일본체험과 인식고찰』, 『은지논총』 21, 은지학회, 2009, pp.97-127.
-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84-89.
- 정장식, 『1636년 통신사의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6,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pp.527-551.
- _____, 『1655년 통신사행과 일본연구』, 『일본학보』 44, 한국일본학회, 2000, pp.609-626.
- _____, 『계미(1643년) 통신사행과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10,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pp.323-340.
- 최재현·차은혜,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도시기능성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5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2, p.52.
- 최종일, 『조선통신사의 일광산치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한수희, 『호국 남용익의 사행문학 연구 : 『부상록』·『문견별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록에 반영된 日光山行』,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pp.309-341.
- 오이시 마나부, 『일본근세도시 에도의 기능과 성격』, 『도시인문학연구』 제1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p.130.

Abstract

Tongsinsa's Recognition of Three Cities i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Gyorin System

Jeong, Eun-Young

The late Joseon dispatched Tongsinsa (communication envoys) to solve internal and external anxieties. Especially, the growth of Qing Dynasty weakened even Joseon's hostility towards Japan. Joseon dispatched Tongsinsa justifying congratulations to the accession of Gwanbaek apart from the purpose of existing dispatches of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for the promotion of peaceful relations with Japan. Accordingly, Tongsinsa in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Gyorin (Neighborly Relations) System could experience Japan in a freer atmosphere and explore knowledge about Japan. At this time, Tongsinsa explored Japan's cities, especially, Osaka, Kyoto and Edo with a great attention.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fulfill their assignments as envoys and at the same time, understand a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Japan. Thus, Tongsinsa attempted to understand knowledge about Japan cohesively through the cities in a short time.

Tongsinsa during the stage of establishment looked at the three cities of Japan from perspectives of urban functions and Fengshui (geometric geography). In terms of urban functions, Osaka, Kyoto and Edo were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centers of Japan, respectively. In terms of Fengshui, Kyoto could play a role of capital for a long time as there was fertile land, but with such openness, it could not but be a place with vulnerability to defend against enemies. In contrast, since Edo, which was hard ground was good for defense, was a good location as the capital of the country. In sum, Tongsinsa understood the direction of power through the functions and natural positions of the major cities of Japan and got help in establishing relations with Japan considering those. Consequently, Tongsinsa's exploration of the three cities

of Japan was the start of an interest in the humanistic elements, which became an opportunity through which the areas of the knowledge about Japan explored by Tongsinisa could be diversified.

Key Word : Tongsinisa, Osaka, Kyoto, Edo, Urban functions, Fengshui (Geometric geography)

정은영

소속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주소 : (614-7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롯데캐슬스카이 106동 2101호

전화번호 : 010-2969-6594

전자우편 : torry97@naver.com

<p>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p>
--